

저반응군 환자에서 과배란 유도시 경구 피임제 전처치의 유용성

김민지 · 조연진 · 박찬우 · 김진영 · 송인옥 · 궁미경 · 강인수 · 전종영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제일병원 산부인과

Objectives: 본 연구는 과배란에 대한 저반응군에서 경구 피임제의 전처치가 체외수정 시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Methods: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일병원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에서 과배란 유도에 대한 저반응군 환자로 경구 피임제 전처치를 시행 받은 67명의 환자의 146주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저반응군은 FSH가 10 mIU/ml 이상이거나 이전에 시행한 과배란 유도에서 난자가 6개 이하로 채취되거나 HCG 투여일의 E2 농도가 500 pg/ml 미만인 환자로 정의하였다. 실험군은 경구 피임제 전처치 후 과배란 유도를 시행하였던 73주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같은 환자에서 경구 피임제 전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 체외수정 시술 방법을 시행한 73주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군간의 월경주기 2~3일째의 혈중 LH, FSH, E2와 성선 자극 호르몬의 양과 기간, HCG 투여 일의 E2와 자궁내막의 두께와 난포의 크기, 획득된 난자 수와 성숙 난자 수, 수정률 및 임신률 등을 비교하였다.

Results: 두 군간의 임상 양상은 비슷하였고 basal LH, FSH, E2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CG 투여 일의 E2, 자궁내막의 두께도 실험군과 (774.2 pg/ml, 9.18 mm) 대조군간에 (739.4 pg/ml, 8.95 mm)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16 mm 초과 난포의 수도 실험군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2.87개 대 2.51개). 또한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획득된 난자 수와 성숙 난자 수 및 성숙 난자의 비율과 수정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47개 대 3.67개, 2.68개 대 2.95개, 72.0% 대 73.3%, 66.3% 대 67.5%). 그러나 경구 피임제 전처치 군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의 사용 기간은 더 길었고 (8.1일 대 9.3일, $p=0.05$) 용량도 더 많이 사용되었다 (34.2ampule 대 43.5ampule, $p=0.029$). 주기 취소율은 실험군에서 31.5%이고 대조군에서 32.9%이며 임신률은 실험군은 6.1% (3/49) 대조군은 10% (5/50)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의의는 없었다.

Conclusion: 과배란 유도에 대한 저반응군에서 경구 피임제의 전처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HCG 투여 일의 E2, 획득된 난자 수와 성숙 난자 수 및 성숙 난자의 비율과 수정율은 높은 경향을 보여 경구 피임제의 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적은 대상 환자 수와 후향적 연구의 한계로 임신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과배란 유도에서 경구 피임제의 전처치의 유용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